

배포 일시	2022. 8. 30.(화)		
담당 부서 <총괄>	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	책임자	과 장 정수호 (044-201-3988)
		담당자	사무관 박선동 (044-201-4133)
보도일시	2022년 8월 3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30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부산-울산 간 전동차, 더욱 편리하게 이용 - 태화강~북울산 광역철도 기본계획 확정·고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태화강~북울산(송정) 광역철도 사업의 기본계획을 9월 1일자로 확정·고시한다고 밝혔다.
- 태화강~북울산(송정) 광역철도 사업은 총사업비 237억원(국비 166억원, 지방비 71억원)을 투입하여 태화강역부터 북울산역까지 9.69km 구간을 전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.

범 례 | ● 전동차전용 ● 전동차, 일반열차 ● 일반열차



구 분	내 용
사업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태화강역~북울산역 간 9.69km, 전동차 운행을 위한 시설 구축 - 북울산역에 고상홈 승강장 1개소, 상·하선 전용선 등 설치
추진 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'21.7 : 국가철도망계획 등 반영 □ '21.11 : 기본계획 수립 착수 □ '22.8 : 기본계획 고시
사업비/사업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237억원 (국비 166억원 지방비 71억원) □ 2022~2025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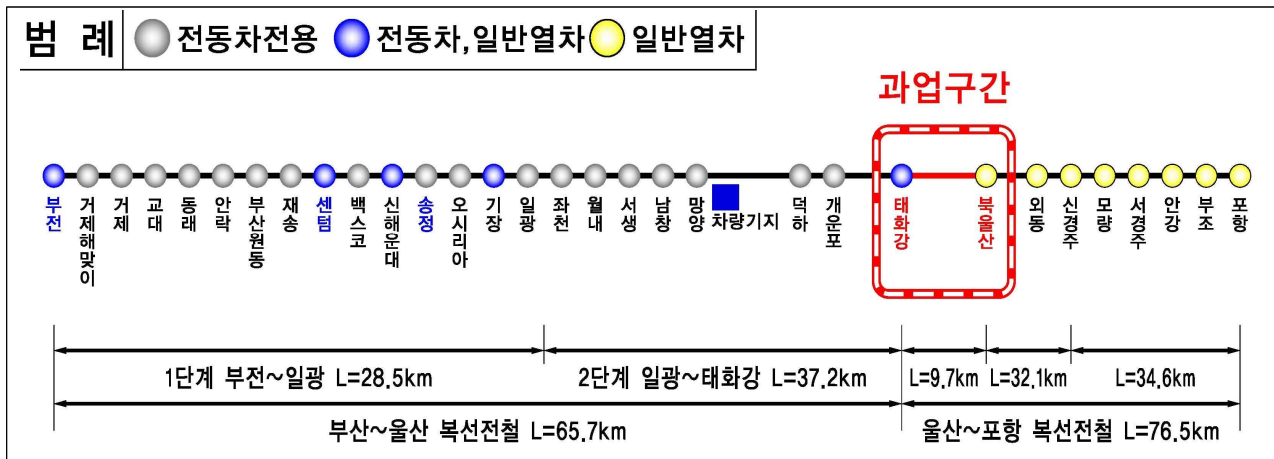


-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본 및 실시설계(∼'23)를 거쳐 '23년 하반기에 착공, 이르면 '25년 상반기에 개통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현재는 부산 부전역∼울산 북울산역 무궁화 열차만 7회 운행 중(평일 기준)이지만, 태화강∼북울산(송정) 광역철도가 개통하게 되면 전동차가 44회 추가 운행할 계획으로,
-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울산 북부 생활권 지역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기본계획 확정·고시 이후 국토교통부, 울산광역시,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은 태화강∼송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,
- 협약에는 부전역∼태화강역 간 전동차를 운행 중인 철도공사가 운영을 담당하고, 운영에 따른 손실은 울산시에서 부담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.
- 국토교통부 정수호 철도투자개발과장은 “태화강∼송정 광역철도 사업을 통해 현재 태화강역까지만 운행 중인 전동차가 울산 북부지역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면 부산-울산 간 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” 라면서,
- “울산시, 철도공단,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, 전동차 제작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	책임자	과 장	정수호 (044-201-3988)
		담당자	사무관	박선동 (044-201-4133)
	울산광역시 광역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재업 (052-229-7760)
		담당자	사무관	신용덕 (052-229-7790)

참고1

태화강~송정 광역철도 사업 개요

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태화강~송정 광역철도
사 업 내 용	태화강역~북울산역간 9.69km, 전동차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
총사업비/사업기간	237억원 / 2022~2025년
사업효과	-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운행 중인 전동차가 북울산역까지 연장운행되어 부산~울산 지역간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

□ 주요 추진경위

- '21. 07 :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
- '21. 11 :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
- '22. 08 : 기본계획 고시

□ 향후 계획

- '25년 개통 목표로 설계·시공 등 사업 추진

참고2

태화강~송정 광역철도 사업 노선도

